

2025학년도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2026. 02. 06

한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회 심의[자문] 내역

NO.	심의 안건	심의 결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양대학교 2025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6학년도 본예산(안)• 발전기금 용도변경 신청 건	자문 완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양대학교병원 2025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6학년도 본예산(안)	자문 완료

첨부 1. 2025학년도 제8차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1부

<div style="text-align: center;">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2025학년도 제8차 회의)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의장  </div>
일 시	2026. 02. 06 (금) 16:00	장 소	신본관 제2회의실
참 석 (14명)	[교수평의원] 이상민, 황성기, 박조원, 김세영, 강창모(ZOOM), 이원철 [직원평의원] 신이식, 조영완, 하찬용 [학생평의원] 박성재(S), 김한미루(E), 김수겸(G) [조교평의원] 이희주 [외부평의원] 이경록		
불 참 (1명)	[외부평의원] 박종배		
<p>▣ 회의진행</p> <p>1. 개회</p> <p>1)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p> <p>2. 안건1(한양대학교 2025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6학년도 본예산(안), 발전기금 용도변경 신청 건)</p> <p>1) 의장이 한양대학교 2025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6학년도 본예산(안), 발전기금 용도변경 신청 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p> <p>2) 서울 기획처장과 서울 예산팀장이 한양대학교 2025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6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p> <p>3) ERICA 기획처장과 ERICA 예산팀장이 ERICA 2025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6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p> <p>4) 의장이 의원들에게 안건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는지 묻고, 질의 시 관련 페이지를 함께 말해 주면 다른 의원들도 함께 집중하기 좋을 것이라고 말하다.</p> <p>5) 1의원이 “러프하게 질문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정도 있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서울 캠퍼스는 줄어들었고 ERICA 캠퍼스는 늘어나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질문하다. 이어 “예비비와 관련해 질문하면, 2025학년도 예비비 사용 규모가 큰데, 서울 캠퍼스는 22억 원을 사용한 반면 ERICA 캠퍼스는 1억 원도 사용하지 않았다. 예비비를 비상금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지, 왜 서울 캠퍼스는 많이 쓰고 ERICA 캠퍼스는 적게 썼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한다.”라고 말하다.</p> <p>6) 서울 예산팀장이 “외국인 유학생 관련 페이지는 8페이지와 9페이지며, 9페이지 그래프를 보면 서울·ERICA 캠퍼스 다 포함해서 학부와 일반대학원 학생 수 전부 약간씩 늘어나고 있다. 아까 설명한 부분은 ERICA 캠퍼스 학부의 경우 증가 폭이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라고 말하다. 이어 “8페이지를 보면 2022학년도 대비 서울 캠퍼스 대학원은 증가율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늘고 있다.”라며, “증가 폭이 ERICA 캠퍼스보다 적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또한 “외국인 학생 유치와 관련해 장학금 등 공격적인 지원이 일부 반영된 것 같다.”라고 말하다.</p> <p>7) 이어 서울 예산팀장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재정규모를 고려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라며, “ERICA 캠퍼스는 재정 상황상 예비비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고 말하다. 이어 “반드시 20억 원이어야 한다, 10억 원이어야 한다는 식의 정해진 틀은 없다.”라고 말하다.</p>			

- 8) 1의원이 “아까 말한 예산 쓰는 걸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묻다.
- 9) 서울 예산팀장이 “본예산 편성할 때 20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잡아놓고, 그런 상황에 대처해서 집행했다.”라며, “2026학년도에도 22억 원을 편성했다.”라고 말한다.
- 10) 2의원이 “ERICA 캠퍼스도 크게 잡고 싶은 건데 ERICA 캠퍼스는 크게 못 잡는 거냐.”라며, “본 캠퍼스가 크지 않거나 ERICA 캠퍼스가 작은 걸로 해석하는 게 맞냐.”라고 질의하다. 이어 “20배 차이는 나지 않지 않냐.”라고 말한다.
- 11) ERICA 예산팀장이 “당연한 얘기지만, 예산 편성을 시작하면 수입보다 지출 예산이 1.3배에서 1.5배 이상 들어온다.”라며, “그래서 서울 캠퍼스도 ERICA 캠퍼스도 우선순위를 따져 잘라내는 작업을 한다.”라고 설명하다. 이어 “이렇게 잘라내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시에 사용하는 예비비는 여력이 없으면 ERICA는 1억 원 정도 편성하고, 서울은 규모가 있어 20억 원 정도 편성한다.”라고 말한다.
- 12) 3의원이 “앞서 1의원이 ERICA 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관련해 언급했는데, ERICA 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증가를 피부로 느낀다. 2022년에 1276명에서 2024년에 1900명으로 거의 600명이 늘어난 건데, 이 늘어난 학생들이 특정 학과로 굉장히 많이 쏠린다.”라고 말한다.
- 13) 의장이 “어떤 학부인지 공유해 달라.”라고 말한다.
- 14) 3의원이 “미디어나 문화 콘텐츠 학과 쪽으로 많이 쏠린다.”라며, “한국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한다.”라고 말한다.
- 15) ERICA 기획처장이 “정확히 말하면 학부는 커뮤니케이션&컬처대학의 미디어학과, 광고홍보학과, 경성대학의 경영학과로 많이 몰리고, 대학원은 디자인학과, 경성대, 커뮤니케이션&컬처 쪽이 많다.”라고 설명하다.
- 16) 3의원이 “유학생 한도가 있냐, 정원 캡이 있냐.”라고 질의하다.
- 17) ERICA 기획처장이 “공식적인 캡은 없지만 ERICA는 최근 몇 년간 증가율이 높았다.”라며, “강의 수용 인원과 물리적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지금처럼 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한다. 이어 “서울에 외국 학생을 많이 유치하지 않던 대학(OOO대, OO대 등)들도 ERICA가 유치하던 국가들로 유치 활동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경쟁도 심해질 것이고, ERICA는 수용 인원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제처에서도 더 늘리고 싶어 하지만 지금처럼 폭발적인 증가율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한다.
- 18) 3의원이 “현실도 고려해야 하고, 교수들과 학생들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유학생 인센티브도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달라.”라고 말한다.
- 19) ERICA 기획처장이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 20) 의장이 “유학생 문제는 단순한 휴먼 이슈가 아니라, 등록금 인상이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 등록금이 학교 재정에서 중요한 대체 수단이 되어왔다.”라고 말한다. 이어 “이와 관련해 실제로 외국인 학생들이 어느 수준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아울러 “기획처 예산팀으로부터는 해외 대학, 특히 미국 주립대학 등의 외국인 등록금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아직까지 일정 수준의 인상은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라고 덧붙인다.
- 21) 서울 기획처장이 “방금 해주신 좋은 말씀 감사하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내국인 대비 약 1.3배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어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일본의 경우에도 정부 규제가 있었으나 최근 이를 완화해 외국인 등록금 인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 또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매년 인상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해 외국인 기숙사를 건립하고 외국인 전용 상담사를 총원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현재 유학생의 상당 부분이 중국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로 과거와 달리 반드시 한국으로 유학을 오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고 말한다. 또한 “중국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10년 이내에도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규모로 원하는 학생을 계속 유치할 수 있을지는 우려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인다.

- 22) 의장이 “그래서 그동안 계속 질의해 왔던 부분이, 중국 학생 수가 갑자기 꺾였을 때 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이어 “특히 ERICA의 경우를 보면,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한 것처럼 최근 들어 갑자기 늘어난 상황인데, 서울 캠퍼스의 일부 학과, 예를 들면 미컴이나 관광 경영 등은 이전부터 이미 이런 상황을 계속 경험해 왔다.”라고 설명한다. “그런 상황이 이제 ERICA 캠퍼스에도 갑자기 나타나면서, ERICA에서도 그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증가 흐름이 갑자기 줄어들 경우, 기존 예산 구조의 관성이 그대로 유지되면 재정이 갑자기 휘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우려해 왔다.”라고 말한다. 이어 “학교 측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단순한 인식 차원을 넘어서, 가시적인 대비책이나 구체적인 대응 작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한다.
- 23) ERICA 기획처장이 “ERICA의 경우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나 섯다운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할 경우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은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어 “노력한 만큼 바로 성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 학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다른 국가 학생 유치를 포함해 국적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이미 시작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비자 등 여러 제도적 이슈로 인해 일부 어려움은 있으나, 중국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유학생 구성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 24) 서울 기획처장이 “국적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 부분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함께 관리해야 하며, 이른바 양손잡이 경영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한다.
- 25) 2의원이 “11페이지 전입금 수입과 관련해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 번째로 산단 전입금이 2023년 대비 2024년에 큰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000대는 반대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한다.
- 26) 서울 기획처장이 “11페이지 병원 전입금을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전공의 사태로 인해 병원 경영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 27) 2의원이 “000대의 전입금이 이렇게 많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다.
- 28) 서울 예산팀장이 “2024년도에는 당초 전출을 받아야 했던 금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2025년도 자료를 보면 다시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학교로 전입됐어야 할 금액이 당시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한다.
- 29) 1의원이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2024년도 산단 전입금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한다.

- 30) 2의원이 “내년에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인지”에 대해 추가로 묻다.
- 31) 이에 서울 기획처장이 “산단 전입금은 2024년도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답하다.
- 32) 의장이 “작년 이 안건을 논의할 때 산단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었다. 병원 쪽에서 약 80~90억 원 정도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산단이 100억 원을 전입했다는 점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다.
- 33) 서울 기획처장이 “현재로서는 산단도 어렵다. 간접비 효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국가 과제가 오면 매칭해야 하는 구조이며, 간접비의 상당 부분을 다시 재투자하게 되어 있어 산단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하다.
- 34) 2의원이 “OO대의 전입금이 많다는 것은 병원 전입금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 병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전입금 규모가 높다.”라며, “이 질문이 다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 규모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 예산 차이가 크면 성과 차이가 나는 것도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다.
- 35) 서울 예산팀장이 “예산팀에서 OOO대 법인의 수입 구조를 파악한 결과, OOOO만 해도 연간 매출이 약 3천억 원 수준”이라며, “이러한 법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학교 전입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다. 이어 “우리도 법인의 수익 사업이 전입금에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인다.
- 36) 서울 기획처장이 “법인에 소속된 수익 사업 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영향이 큰 것 같다. 특히 병원을 통해 임상교원 인건비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 전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단기간에 이를 따라잡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다. 또한 “우리 법인도 건물 건립 등에 최근 약 2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법정 부담금 외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인다.
- 37) 의장이 “매년 헛갈렸던 부분이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의 차이였다. 창원이나 일산 등에도 협력병원이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관련 안건을 볼 때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OOO대도 OO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질의하다.
- 38) 서울 기획처장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답하다. 더불어 “이와 같은 이유로 협력병원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관련 금액이 학교로 유입되고 있으나, 이는 전입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하다.
- 39) 의장이 “올해 적립금 수입 자료에서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며, “이전 자료에는 의과대학 임상교원 인건비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 전체의 약 70~80% 수준을 차지했는데, 올해 자료에는 해당 항목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다.
- 40) 서울 예산팀장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분에 누락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다. “19페이지를 보면, 2025학년도 추경 기준 부속병원 전입금 항목에 225억 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으로 임상 교원 인건비가 약 271억 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 인건비의 약 83%가 대학으로 전출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하다.
- 41) 4의원이 “서울캠퍼스와 ERICA캠퍼스에 같이 질문하고 싶다. 14페이지 보수 항목을 보면 교직원 보수 비율이 49.9%로, 2024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다. 24페이지와 38페이지를 보면 2025년과 2026년에 대한 예정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데, 교원은 2026년까지 총 60명이 증원되고 직원 역시 이에 상응하는 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25년과 2026년에는 교직원 보수 비율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에 타 대학 대비 교직원 보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

이는데, 교수 임용이 확대되는 점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외국인 유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원 역시 일정 수준까지는 환경과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현재 서울캠퍼스의 경우 교수 연구실 공간조차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명이 넘는 신규 교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연구 공간이 실제로 확보 가능한지, 또한 이에 대한 투자 및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하다.

- 42) 서울 예산팀장이 “보수와 관련해서는 14페이지를 보면 다른 대학들도 서서히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대학도 급여 인상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되면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교원 임용의 경우 2026학년도에 예정되어 있으나, 목표한 인원이 총원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어 “공간과 관련해서는 학내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각 단과대학에서도 남는 공간이나 미사용 공간을 찾아 활용하거나, 기존 사용자의 공간을 조정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본부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고자 하지만, 공간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은 이슈라 계속된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말한다.
- 43) 서울 기획처장이 “교무처에서 교수 TO를 배정할 때, 신규 임용 교수의 연구실 확보 여부와 대학원생 수용 공간이 있는지 등을 모두 검토해 TO 선정 시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
- 44) 의장이 “해당 질문은 매년 나오는 단골 질문이며, 본부에서는 임용 인원수가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로는 중도 포기나 임용 불발 등의 변수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일괄적으로 모두 다 뽑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해 왔다. 공간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동안에는 본부가 해당 사안을 RC 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덧붙인다.
- 45) 서울 기획처장이 “공간관리위원회에도 참석하고 있는데, 퇴직한 교원들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상당 부분 존재해, 해당 공간들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 46) 3의원이 “노동자 안전이나 인권 관련 이슈가 앞으로 계속 강화되고 강조될 것인데, 정부 변화 등도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 상 안전 관련 예산이 별도로 명확히 보이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다. 이어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가 시행사 책임인지, 또는 학교도 별도로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유의해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 47) ERICA 기획처장이 “공사 관련해서는 1차적인 책임은 시행사에 있으나, 대형 사업장의 경우 발주자 역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어 “교내 실험실 사고 등과 관련해서도 ERICA에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안전 교육과 실험실 보호장비 구입 등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라고 설명하다.
- 48) 의장이 “서울 캠퍼스와 ERICA 캠퍼스의 학생 대표들과 조교 대표가 참석해 있으니 발언 기회를 우선적으로 드리겠다. 교직원들의 추가 질의는 학생 대표 발언 이후에 받겠다.”라고 말한다
- 49) 5의원이 “앞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8페이지를 보면 등록금 의존율이 54%로 타 대학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라고 생각된다. 2026년에도 서울과 ERICA 모두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보이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 또한 “총수입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학교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향후 등록금을 인상하게 될 경우, 장학금 확대 등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한다. 아울러 “전입금이나 기부금 등을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 어려운 현실은 이해하지만,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인다.

- 50) 서울 기획처장이 “16페이지 하단 우측의 교내 장학금 표를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한양대의 장학금 규모가 00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절대 금액 기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증가율을 보더라도 다른 대학들은 정체된 반면, 우리 대학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학교가 학생들의 등록금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다. 또한 “작년 대외 평가 성과도 좋았으며, 등록금 인상 이후 해당 재원을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입하고 있어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이다.
- 51) 6의원이 “앞서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의문이 많이 해소됐다. 12페이지 기부금 수입과 관련해 질문이 있다. 기부금은 주로 동문과 교직원 기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기부금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외부 기부금 유치를 위한 별도의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하다.
- 52) 서울 예산팀장이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모두 외부에서 유입되는 재원으로, 학교 회계 내에 모두 반영되고 있다. 외부 기부금은 모두 학교 회계 세입으로 처리되며, 기부 목적에 따라 용도가 지정돼 해당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되고 있다.”라며, “정부 지침에 따라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다.
- 53) 6의원이 “26페이지 연구·학생 경비 항목과 관련해 추가 질문이 있다. 교내 장학금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으나, 증감표를 보면 일부 항목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하다.
- 54) 서울 예산팀장이 “26페이지 증감 내역을 보면 기금 장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학비 감면은 19억 원 증가했으나, 기금 자원 장학은 추경 편성 시마다 인출 수입과 지출이 함께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예산 상으로는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다. “기존에 집행해 오던 기금 장학은 내년도에도 계속 집행될 예정이며, 계약학과 의 경우 외부 사업비나 운영비를 받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해당 사업이 유지될 경우 추경을 통해 다시 장학금으로 반영될 것이다.”라고 말하다. 아울러 “이러한 구조로 인해 본예산 상으로는 감소로 보이지만, 추경을 반영하면 전체적으로는 장학금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이다.
- 55) 서울 기획처장이 “계약학과 관련 예산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년도 추경과 비교할 경우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추경 대 추경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실제로 감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다.
- 56) 6의원이 “추가로 지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실습 운영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은 바 있는데, 이번 예산에 해당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궁금하다. 전자관 및 음악관 신축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착공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질의하다.
- 57) 서울 예산팀장이 “기존에는 Linc 사업을 통해 약 상당 규모의 국고 사업비가 현장실습 지원비가 집행되었으나, Linc 사업 종료로 인해 국고 지원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현장실습 사업은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에 중요한 만큼, 본부 판단에 따라 해당 예산을 교비로 전환하여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다. 또한 “기업에 환급하는 구조로 인해 인건비 증가에 따라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학교가 인턴십 운영을 위해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다. 아울러 “향후에도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다. “전자관 및 음악관 신축 공사의 착공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덧붙이다.
- 58) 7의원이 “대학원 총학생회장으로서, 장학금 실질 금액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 매년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학부 및 대학원 학생 대표 측이 장학금 증액을 요청해 왔고, 그 요청이 반영되어 금액이 증가한 점도 알고 있다. 다만,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장학금이 증액된 만큼 환원되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문제를 매년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라고 말한다. “본부에서는 장학금이 RC로 이관되어 관리되는 구조이며, ERICA는 직접 관리하고 서울 캠퍼스는 RC를 통해 처리되는 방식이다. 이렇듯 본부 부담 비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교수님들이 담당하는 부담 몫이 점차 줄어드는 형태가 되고 있다.”라고 말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본부 70%, RC 30% 수준의 비율이었다면, 현재는 본부 비율이 약 80%까지 확대되고 RC는 2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체감된다. RC에서도 장학금 증액에 따라 부담 비율을 함께 늘릴 계획이나 논의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한다.

- 59) 서울 예산팀장이 “본부 차원의 장학 정책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부분 사이에 다소 갭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된다. 학교는 우수 학생 유치 등 전략적 목적에 따라 장학 예산을 편성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이러한 전략적 편성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장학 혜택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대학원 교학팀 및 학생지원팀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한다.
- 60) 8의원이 “ERICA 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서 각 캠퍼스 예산안을 보며 ERICA 캠퍼스 관련 논의를 하고자 한다. ERICA가 행정, 취업, 연구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고 있다는 인식이 구성원들 사이에 큰 애로사항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한다. 이어 “좋은 학교로 인정받고 고평가받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5페이지와 39페이지를 보면 관리운영비 중 홍보 관련 예산이 서울 캠퍼스는 약 21억 원, ERICA 캠퍼스는 약 7억 원으로 약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미 잘 갖춰진 서울 캠퍼스와 비교할 때, ERICA 캠퍼스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RICA 캠퍼스가 더 고평가받기 위해 추가적인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인다.
- 61) ERICA 기획처장이 “ERICA 평판도 및 홍보 문제는 ERICA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사안이다. 올해 초 장단 처장단 워크숍에서도 큰 주제 중 하나였다. ERICA 대외협력처와 서울 대외협력처는 위상과 규모, 예산에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인지하고 올해는 학교 홍보와 평판도 제고를 위한 예산을 작년보다 대폭 확대해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계획에 따라 관련 예산도 추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인다.
- 62) ERICA 예산팀장이 “계정상 홍보비 외에도 학교 브랜딩 관련 예산은 연구 과제 형태로 편성되어 연구비 항목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추경에서 브랜딩·홍보 사업으로 4억 원 규모의 연구 과제가 편성된 바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본예산 집행 이후 더 큰 규모의 브랜딩 관련 연구 과제가 추가로 생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요 브랜딩 홍보는 해당 예산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한다.
- 63) 8의원이 “학생 커뮤니티에서는 ERICA 캠퍼스가 홍보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질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 64) 9의원이 “예산 편성과 별도로 실제로 병원 전입금이 예산대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병원에서 별도 보고를 받기 전에, 현재 시점에서 예산팀 차원에서 실제 입금 여부와 예산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한다.
- 65) 서울 예산팀장이 “2025년도 병원 전입금은 추경 예산으로 225억 원이 편성돼 있으며, 1월분까지는 정상적으로 입금되었고, 2월 중 약 18억 원이 추가로 입금되면 전액 입금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 66) 9의원이 “과거에 병원 전입금이 예산 대비 전액 입금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채무자처럼 취급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추경예산 대비 100%가 실제로 채워졌는지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말한다.

- 67) 의장이 “과거에는 병원 전입금이 180억 원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약 80억 원이 미입금된 적이 있었고, 당시 10월 이후부터 지연 입금되면서 해당 금액이 누적된 바 있다.”라고 설명한다.
- 68) 이어 의장이 “이기정 총장님 취임 이후 전략 예산 체계가 변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임 총장님 재임 시기에도 대학평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내용을 보았다. 전략 예산을 교육·연구·경영의 세 가지 큰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략 예산’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별도의 전략 예산이라는 세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흩어져 있는 예산들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 보여주는 용도인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질의한다.
- 69) 서울 예산팀장이 “우리 대학은 2026 중기 발전 계획과 과거 2030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교육·연구·경영 분야별 전략 과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산팀에서도 이러한 전략 과제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예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략 과제에 따른 예상액을 반영해 전년 대비 증감 여부를 함께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아울러 “항목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전략 예산 체계를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인다.
- 70) 의장이 “전략 예산을 볼 때마다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23페이지를 보면 ‘품격을 갖춘 경영’ 항목 아래 ‘구성원의 행복에 집중하는 경영’이 있고, 그중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과 전략 수립’에 36억 원이 편성돼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2억 원 증가한 금액”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이 자리에 구성원 대표들이 모두 와 있는데,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정책과 전략 수립에 36억 원이 편성됐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무엇이 포함돼서 이런 금액이 산정된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말한다. 또한 “전략 예산 항목들을 보다 보면, 추상적인 표현이 많아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이 포함돼 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발언한다.
- 71) 서울 예산팀장이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 및 전략 수립 항목에는 교직원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한다.
- 72) 서울 기획처장이 “해당 항목은 단순한 수립만이 아니라, 정책의 이행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충 설명한다.
- 73) 10의원이 “아까 등록금 얘기가 나왔는데 14년 만에 인상을 어렵게 하게 되었고, 등심위를 통해 학생들과 협상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등록금 의존율이 현재 54%이고 00대·00대·000대는 50% 미만이지만 00대·00대는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한다. 또한 “등록금 의존율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등록금을 추가로 인상할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딜레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다른 수입이 늘지 않는 이상 구조적인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에 대한 학교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한다.
- 74) 서울 예산팀장이 “주요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에는 등록금 외 수입이 모두 반영되며, 법인 전입금 규모 등의 차이가 의존율에 영향을 미친다. 12페이지에 제시된 국고 수입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주요 대학 비교 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교수 및 직원들이 등록금 외 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산단 전입금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학교로의 자원 유입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단순한 계획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가능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 75) 서울 기획처장이 “단기적으로 등록금 의존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으며, 대규모 기부 등으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법인 전입금, 산단 전입금, 병원 전입금, 기부금, 국고 수입 등 등록금 외 재원을 지

속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어려우며, 외국인 유학생 비중 등 학교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설명하다.

76) 11의원이 “정확한 내용은 잘 몰라 broadly하게 질문하자면 졸업한 동문들과 학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나 플랫폼, 네트워크 체계가 현재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지, 특히 해외 동문 및 외국인 유학생 출신 동문들과의 연계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하다.

77) 서울 기획처장이 “해당 사안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 동문이 약 1만 3천 명이며, 그중 약 1만 명이 중국 동문이다. 이들 중에는 교수로 재직 중인 동문과 중국 내 글로벌 기업 및 빅테크 기업에 진출한 동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총동문회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출신 동문들도 함께 포용하여 연대하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해주면 매우 의미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다.

78) 의장이 “예를 들어 중문 MBA 과정을 지원하려는 학생들 중에는 상하이 등지에 자본력이 있는 기업 대표 및 경영진으로 활동 중인 분들이 많다. 다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중심 학위과정의 경우, 학위 운영 방식과 동문 인정 여부 등을 둘러싼 내부적 논의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하다.

79) 서울 기획처장이 “최근 중국 상하이에 1박 2일 출장을 다녀왔으며, 현지에서 교수로 활동 중인 동문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한양대학교 교수진과의 융합 연구, 중국 내 권역별 총동문회 결성, 동문 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라고 설명하다. “해당 간담회에서 동문들이 학교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강하게 표현했으며, 장학금, 기숙사 지원, 유학 시절의 경험 등을 언급하며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공유했다. 이러한 동문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활용한다면, 우리 대학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다.

80) 6의원이 “ERICA 총학생회장이 언급한 홍보 관련 논의와 같이, 서울 캠퍼스 역시 홍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하다. “서울 캠퍼스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최근 000대, 00대 등 유사한 입시권에 있는 대학들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000대가 가장 위협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학생 선호도가 우리 학교보다 해당 대학 쪽으로 다소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입학처 및 입시 관련 분야에서 한양대학교의 입시 전략이 학생들 사이에서 다소 미비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000대 등 타 대학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하다. “이번 대학평의원회 자리인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다.

81) 서울 기획처장과 서울 예산팀장이 발전기금 용도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82) ERICA 기획처장과 ERICA 예산팀장이 ERICA 발전기금 용도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아 구두로 설명하다.

83) 의장이 “회의 전 제출하지 못한 ERICA 발전기금 용도변경 신청 건과 관련된 자료는 추후 별도로 보내 달라. 서면 절차가 필요하므로 해당 건은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다.

84) 의장이 추가 질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다.

3. 안건2(한양대학교병원 2025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6학년도 본예산(안))

1) 의장이 한양대학교병원 2025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6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2) 박성열 기획조정실장과 손진석 기획팀장이 한양대학교병원 2025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6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3) 정진혁 기획조정실장과 박용범 기획팀 파트장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2025학년도 추경 예산(안) 및 2026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4) 의장이 의원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는지 물으며, “최근 병원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며, 월 매출액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구리병원과 관련하여 농협 부지 매입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다.
- 5) 1의원이 농협 부지 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다.
- 6) 정진혁 기획조정실장이 “기존에 매입 계획이 있었으나 유찰된 이후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대기하던 중, 의료 제약 도매상 계열 업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는 상황이 다소 어려워졌다.”라고 설명하다. 이어 “해당 업체는 타 대학병원 인근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이다.
- 7) 의장이 매입 비용을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8) 정진혁 기획조정실장이 “자료에 표시된 노란색 박스 구역이 해당 부지로, 주차타워와 본관 사이에 위치해 일종의 알 박기 형태로 끼어 있는 건물이다. 병원 설립 당시 해당 부지를 함께 매입해야 했으나, 현재는 농협 건물이 해당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다. “현재 해당 부지는 도매상 계열 업체가 매입한 상태로, 다소 문제가 있는 업체로 파악하고 있다. 1층에는 대형 약국 유치를 추진해 병원 수요를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상층부는 활용도가 낮아 병원 측에 임대를 유도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단국대 사례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로 알고 있어, 운영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다. “해당 부지가 매각될 경우, 주차타워 부지와 함께 통합 개발이 가능해 대규모 건물 신축이 가능하며, 이는 병원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매우 유리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다.
- 9) 2의원이 “작년에도 계속 의원으로 참여하면서 숫자 위주로만 자료를 해석해 왔는데, 이번에는 PT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궁금한 점은 많지만, 자료만으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 같아 의미가 크다.”라고 말하다. 또한 “병원만 단독으로 고민하기보다 대표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찾아가는 원년이 될 것 같아 자료 제공에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이다.
- 10) 의장이 “앞서 언급된 농협 부지 문제는 수년간 계속 논의되어 온 사안인데, 이번에 사진과 함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욱 생생하게 와닿는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단순히 ‘병원 앞쪽 공간을 매입해야 하나 어렵다.’라는 식의 단순한 설명에 그쳤는데, 이번 자료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는데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덧붙이다.
- 11) 2의원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공유해 주신 덕분에, 위원들 역시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노력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다. 이어 “서울병원 PPT 자료 중 병상 가동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자료 3페이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본 결과, 서울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약 66% 수준으로 보이며, 건국대학교병원은 약 74~75%, 이대 목동병원은 95~96% 수준으로 나타난다. 병상 가동률이 병상당 가동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타 병원 대비 우리 병원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다.
- 12) 박성열 기획조정실장이 “환자가 많아지면 병상 가동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 최근 12월부터는 입원 환자가 많이 증가하여 실제로 입원하지 못할 정도로 환자가 늘었고, 정상 가동률이 12월 기준 약 80%에 근접했다.”라고 설명하다. 또한 “이 정도 수준이 되면 환자들이 입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너무 높은 병상 가동률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70% 이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2026학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 13) 2의원이 “병상 가동률이 높을 경우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인지 궁금하다.”라며 관련 설명을 요청하다.
- 14) 박성열 기획조정실장이 “병상은 중환자실이나 특수 목적 병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 일부 병상은 비어 있거나 반대로 과밀 상태가 될 수 있다. 환자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 입원 환자가 줄어들어 재원 일수가 감소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병상 가동률이 높으면서도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신호”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초기 수술·치료 단계에서 비용과 수익이 집중되고,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은 떨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하다. 아울러 “병상 가동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환자당 재원 일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 입원 환자는 가급적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협력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하고, 주변 병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재원 일수 단축과 가동률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 15) 2의원 “같은 페이지의 매출액 자료를 보며 병상수와 매출 간의 관계가 궁금해 질문한 것이다. 서울병원은 802병상에 약 3,600억 원 수준인 반면, 이대 목동병원은 589병상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말한다.
- 16) 박성열 기획조정실장이 “이대 목동병원의 경우 수술과 퇴원을 빠르게 운영하는 등 병상 회전을 측면에서 서울병원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이며, 한정된 자원과 공간에서 병상 회전을 빠르게 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설명하다.
- 17) 3의원이 “2025년도 병원 전입금이 225억 원으로 정상화되었으나, 2023년 187억 원에서 2024년 104억 원으로 많이 감소한 점이 의문이다. 다른 대학 병원들은 의정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이 보합이거나 오히려 증가한 사례도 있었는데, 왜 우리 학교 병원만 유독 많이 감소했는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하다.
- 18) 박성열 기획조정실장이 “목표한 수준의 전입금을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구조적으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병원 구조로 인해 전공의 인력이 이탈했을 때 의료 현장에 초기 충격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다. 또한 “전문의 수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 비중이 높다 보니, 전공의 공백 시 의료 차질이 컸고, 전문간호사 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라고 말한다. “이후 전문간호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최근에는 상당 부분 회복된 상태다. 전공의가 다시 유입되는 상황에서도 전문간호사를 성급히 줄이지 않고, 충분한 교육과 숙련 기간을 거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라며, “근로 시간 감소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추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한다.
- 19) 3의원이 “구리병원 관련 설명 중 GTX 언급이 있었으나, 지도를 확인해 보니 구리병원 인근에 지하철역이 없고, 도보로 약 2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다.
- 20) 정진혁 기획조정실장이 “현재 구리역은 롯데백화점 인근에 있으며, 당초에는 구리시청, 구리경찰서, 교문사거리 등을 거쳐 병원 앞으로 노선이 지나갈 가능성도 있었으나, 노선이 우회되면서 병원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또한 “이로 인해 구리 지역 및 지하철 노선과 연계된 신도시 환자들이 서울, 특히 잠실과 바로 연결되는 아산병원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하다. “구리병원이 최소한 환자들에게 ‘여기도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확충이 필요하다. 앞서 구리농협 부지 매입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만약 지하철 노선이 병원 인근으로 연결되었더라면 현재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덧붙인다.

- 21) 의장이 “현재 서울병원 수술동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해당 부지에 있던 기능들은 어떻게 대체되는지, 그 공간에 있던 부서나 인력 등 관련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상태인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하다.
- 22) 손진석 기획팀장이 “수술동 계획과 관련된 일정표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다.”라며 자료 제시를 요청하다.
- 23) 의장이 “서울병원 자료이며, 22페이지를 참고해 달라.”라고 말하다.
- 24) 손진석 기획팀장이 “현재 서울병원 수술동 관련 설계 용역 입찰을 마치고 설계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신관으로 불리는 건물은 실제로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며, MRI, CT 등 주요 영상 장비가 위치해 있다.”라고 말하다. 또한 “신관을 즉시 철거할 경우 기능적인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상치료동을 먼저 설계·건립하여 해당 기능을 이전한 후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아울러 “2025년에 영상치료동 관련 설계가 진행되고, 이후 수술동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영상치료 기능을 이전 완료한 뒤 기존 신관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수술동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말하며, “전체 사업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다. 또한 “기존 기능을 중단할 경우 병원 매출 및 운영에 큰 타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병원 시설은 반드시 대체 공간을 확보한 이후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다.
- 25)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차원에서 대외적인 이슈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부지 일부 층의 재단 관련 공간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하다.
- 26) 손진석 기획팀장이 “해당 공간은 새로 건립되는 건물 내에 기념관 형태 또는 기념 홀 형태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하다.
- 27) 의장이 “일부 언론에서 드론 촬영으로 반복적으로 비추는 사례가 있어, 동문들 사이에서도 관련 질의가 잦은 상황”이라며,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고 말하다.
- 28) 손진석 기획팀장이 “현재 학교법인 이미지가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며, “이미지 전환을 위해서라도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하다.
- 29) 의장이 “병원 외래 병동을 포함해, 의대나 병원 방문 시 교문 앞까지 연결되는 형태로 조성된 조감도상의 신규 외래 병동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계획은 단순한 구상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이어 “정문 앞에 조성된 멋있는 모습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덧붙이다.
- 30) 손진석 기획팀장이 “해당 조감도와 관련된 설계 용역은 이미 발주하여 설계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였으나, 이후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병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노후 건물로 인한 수술동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동 및 중환자실 등 핵심 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외래 병동 계획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다.
- 31) 의장이 “그렇다면 해당 외래 병동 계획은 10년 이후 등 구체적인 시기 없이 단순히 뒤로 미뤄진 상태로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32) 손진석 기획팀장이 “현재로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태다.”라고 답변하다.
- 33) 2의원이 “같은 페이지의 일정표를 기준으로 볼 때,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비 규모가 산출될 텐데, 영상치료동은 약 3년, 수술동은 약 4년 정도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

며, 각각의 공사비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 금액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34) 손진석 기획팀장이 “공사 금액은 약 1,400억 원 수준”이라고 말하다.
- 35) 2의원이 “전체 사업 기준 금액인지”를 재확인하다.
- 36) 박성열 기획조정실장이 “영상치료동과 수술동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업의 총 예상 비용이 약 1,4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라고 설명하다.
- 37) 2의원이 “자료에는 수술동만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다.
- 38) 박성열 기획조정실장이 “영상치료동도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 추진 편의상 영상치료동을 먼저 건립한 후, 이후 수술동을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하다.
- 39) 4의원이 “에리카 캠퍼스 쪽에 병원 신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40) 손진석 기획팀장이 “이번에 에리카 캠퍼스, 안산시, 의료원, 한양학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계획이 언론에 발표된 바 있다.”라고 설명하다. 이어 “병원도 해당 사업에 맞춰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MOU를 체결한 단계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다.
- 41) 의장이 “학생 대표 중 병원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를 묻다.
- 42) 5의원이 “농협은행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동을 함께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공사 기간 중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43) 정진혁 기획조정실장이 “공사 기간 중 일시적인 주차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관 지하 주차장은 병원과 다소 떨어져 있어 주로 교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에는 해당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직원 차량을 외부로 분산 배치하여 현재 주차 빌딩(약 160대 수용)으로 흡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하다. “완공 전까지는 교직원들이 다소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과거 5부제를 시행해 세무서 건물 인근까지 도보 이동했던 사례와 유사한 방식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주차장은 폭이 좁고 회전 반경이 매우 협소해 진출입 시 차량 접촉 사고가 잦아 악명이 높다.”라고 설명하다. 이어 “해당 구간을 관통하여 하부로 동선을 개선할 경우, 진출입로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의 열악한 주차 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다.
- 44) 의장이 “구리병원의 이비인후과의 경우 인력 충원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젊은 여성 전임교원 두 분을 채용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하다.
- 45) 정진혁 기획조정실장이 “전문의로서는 구리병원이 지방 병원이고, 교수를 하려면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2차 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것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진료 전담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하다.
- 46) 의장이 “올해 처음으로 서울병원과 구리병원 현황이 파워포인트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올해 처음 시도된 것이다.”라고 설명하다. 이어 “대학병원 구성원으로서 병원의 전반적인 상황과 어려움, 향후 방향성을 알고 싶었으나 과거에는 단순한 엑셀 예산표만 달랑 제공되어 의원들의 불만이 많았다.”라고 말하다. “올해부터는 비교 대학 자료와 함께 보다 가시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가 준비되어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이

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다고 선언하다.

4. 폐회

의장이 2025학년도 제8차 대학평의원회 자문회의의 종료를 선언하다.

■ 2025학년도 제8차 회의 결과 요약

안건1. 한양대학교 2025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6학년도 본예산(안), 발전기금 용도변경 신청 건 : 자문완료.

안건2. 한양대학교병원 2025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6학년도 본예산(안) : 자문완료.

“끝”

대학평의원회 의 장 이상민		부의장 신이식	
평의원 황성기		평의원 박조원	
평의원 김세영		평의원 강창모	
평의원 이원철		평의원 조영완	
평의원 하찬용		평의원 박성재	
평의원 김한미루		평의원 김수경	
평의원 이경록		평의원 박종배	
평의원 이희주			